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시사, 산호지구 배수개선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 김준혁(=호남) 기자 | ⓒ 승인 2026.05.14 15:35

상습 침수 농경지 배수 개선·영농환경 개선 추진
주민 의견 수렴...배수장 신설·배수로 정비 본격 추진



▲문평면 복지회관에서 주민설명회 실시 [사진제공=한국농어촌공사 나주시사]

[폴리뉴스 김준혁(=호남)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시사가 상습 침수지역 농경지 피해 예방과 영농환경 개선을 위한 산호지구 배수개선사업 추진에 나섰다.

농어촌공사 나주시사는 지난 13일 문평면 복지회관과 다시면 마을회관에서 지역주민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호지구 배수개선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상습 침수지역 농경지의 배수 불량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사업 개요와 주요 시설계획, 추진 일정, 기대효과 등을 설명했다. 이어 주민 건의사항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진행됐다.

특히 주민들은 집중호우 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농경지 침수 피해 문제를 언급하며 배수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산호지구 배수개선사업은 배수장 신설과 배수로 정비 등을 통해 집중호우 시 농경지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2월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됐다. 앞으로 시행계획 수립을 거쳐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국지성 집중호우와 침수 피해가 반복되면서 농업기반시설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배수시설 정비는 농작물 피해 예방과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류화열 나주시사장은 "이번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재해 예방과 영농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준혁(=호남) 기자 junjun6816@naver.com